

빠른 정답

[제1회]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③	4	②	7	①
2	②	5	②	8	②
3	⑤	6	③		

[제2회]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④	4	④	7	④
2	②	5	⑤	8	②
3	②	6	③		

정답과 해설

[4회차]

멸종위기생물

1. 답 ③

정답

③ 글 전반에 걸쳐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법률 체계가 어떻게 적용되고, 관계 법령들이 결합할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지가 핵심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오답해설

① 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제도를 다른 나라의 사례와 비교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 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의 개념과 중요성을 앞세워 관련 부처별 관리 업무가 분산되는 양상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방법이나 각 방법의 기술적 유용성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⑤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이를 통해 지자체 조례 제정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지 않다.

2. 답 ②

정답

② 문화재로 지정된 천연기념물이 멸종위기종인 경우, 문화재청이 추가로 관할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오답해설

①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포획·채취하거나 반출입하려면 지자체가 아닌 환경부 허가가 필요하다.

③ 2024년 이후에도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은 허가가 있어야 합법으로 인정되며, 이전과 달리 무허가 증식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을 뿐이다.

④ 유해야생동물이라더라도 멸종위기종인 경우 포획허가는 극도로 제한되며, 일반적인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⑤ 여러 법령이 중복 적용될 때는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른 높은 보호 수준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하위 법령이 먼저 적용된다는 내용은 적절치 않다.

3. 답 ⑤

정답

⑤ 불법 증식 등으로 몰수된 멸종위기 생물은 국가 또는 지자체 관할 보건기관으로 이전되므로, 반드시 환경부 소관 보건기관으로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해설

①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해양 생물이라든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면 환경부와 협의하여 관리 방안을 마련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경부가 추가적인 관리 조건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II급 야생동물도 허가만 받으면 개인이 서식지 복원 등의 목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③ 멸종위기 생물이 피해를 일으켰을 경우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피해 보상 제도를 마련하거나 보상을 지원할 수 있다.

④ 피해예방시설 설치 구역이 멸종위기 생물의 서식지와 겹치면, 서식지 형질 변경 규제가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4. 답 ②

정답

② 흰목물떼새는 '유해하지 않아서'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부적절하다. 실제로는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포획 허가가 극도로 제한되는 것이다.

오답해설

① 흰목물떼새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이므로, 야생생물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③ 계획된 시설이 서식지 일부를 포함한다면, 서식지 형질 변경 규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

④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는 조례를 정해 주민 피해를 보상하거나 복구를 돕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다면 문화재청 소관 규정이 추가되어, 보호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현대소설

EBS 수능특강 175쪽 연계 김승욱, 「차나 한잔」

5. 답 ②

정답

② 군대에서 '그'가 연재 중인 만화 등장인물과 자기 처지를 동일하게 여겼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다. 오히려 군대 시절의 회상을 바탕으로 그는 만화 등장인물과 자신을 동일시 하였다.

오답해설

① '그'가 목표했던 입사 시험에 떨어졌으나, 함께 낙방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③ '그'는 김 선생과 술을 마시던 중 '아름X군'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그렸다고 하였다.

④ 아주머니의 방귀 소리에 재봉틀 소리가 잠시 그쳐, '그'가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있지만,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를 못마땅해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아내와 농을 주고받으며 시끄러운 상황을 언급하는 모습이 그려질 뿐이다.

⑤ '그'가 아내를 안으며 훗날 자신이 아내를 때리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였다.

6. 답 ③

정답

③ '그'가 독자들이 위험한 장면에서 이야기를 끊길 것을 요구한다는 말을 할 뿐, 만화 줄거리가 독자 기대와 불일치하게 될 것을 걱정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A]에서 그는 자신의 만화 내용을 바탕으로 '미안하다, '아름X군'...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요구하거든.'이라며 타인의 원하는 대로 써온 자신의 줄거리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낸다.

오답해설

① [A]에서 '아름X군'을 지우며 사과하는 모습은 만화 연재를 계속하기 어렵게 된 상황에 대한 불만족이 드러난다.

② [A]에서 만화 등장인물을 직접 지우는 과정을 통해 연재 중단 가능성이 암시되어 있다. 특히 아름X군에게 '나와 헤어지더라도'라는 발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④ [B]에서 '그'는 아주머니의 방귀 소리에 웃음을 터뜨리고, 이에 재봉틀 소리가 멈추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며, 그 소리가 신경 쓰였을 거라 여긴다.

⑤ [B]에서 재봉틀 소리는 열방 아주머니의 삶을 떠올리게 하여 '그'가 낮의 영감을 생각하는 등 주변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7. 답 ①

정답

① ①에서 '그'는 목표했던 대학에 떨어졌지만, "나만 열심히 하면 어느 대학이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오답해설

② ⑤에서 군대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시작한 만화 연재가 과거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이전 경험과 무관함'을 드러낸다는 내용은 맞지 않는다.

③ ③에서 '그'는 자기를 향해 '거지같은 자식'이라 욕하며, 자신 스스로에게 '나의 주장이 있어야 할 게 아닌가'라고 하기에 자신의 주장들에 대한 반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④에서 '그'가 "대학에서 배운 것을 팔아먹고 싶진 않다."고 말하는 것은 사회학과에서 배운 것을 말하는 것이지, 현재 그의 생계 수단인 만화를 이야기 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㉔에서 '그'는 아내를 끌어안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에, 아내와 화해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애초에 싸웠다고 보기도 어렵다.

8. **답** ②

정답

② 군대생활을 떠올리며, 현재의 불안정한 처지를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오답해설

① '어찌다가'를 반복하며 보상을 못 받는 과정을 드러낸다고 보거나, 그저 우연에 맡겨진 삶의 경로를 보여 준다.

③ 택시에 두고 내린 '서류용 봉투'로 그가 생계 수단을 회피한다고 보기 어렵다. 봉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나오지 않으며, 봉투는 술에서 깬 후 두고 내린 것이다.

④ "이제 난... 힘이 없단 말야."는 무력감에 빠져 있지만, 이 태도가 줄곧 일관된 모습이라 할 수 없다. 주인공은 갈등과 대비 사이의 인물이다.

⑤ "어지간히 성실히 사는 척하지?" 같은 말은 타인 탓으로 불만을 돌린다고 보거나, 불안정한 처지에서 비롯된 피곤함과 냉소를 보여 준다.

[5회차]

테리다의 은유 이론
EBS 수능특강 60쪽 블룬베르크의 은유 연계

1. 답 ④

정답

④ 특정한 체계의 논증 속 비유는 개념 성립의 출발점으로 기능하며 비유가 등장하였을 때는 사람들은 그러한 언표가 비유임을 분명히 인식한다.

오답해설

- ① 테리다는 은유가 서구 철학에서 전혀 배제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서구 철학 담론에 깊이 침투해 있다고 보았다.
- ② 합리성이 보편 모델로 여겨지는 것은, 은유의 수사적 기능을 단순히 간과한 결과라기보다 특정 문화권의 맥락을 탈색하여 보편성으로 포장하는 '백색 신화'와 관련된 현상으로 설명된다. 또한 테리다는 은유를 수사적 기능으로 한정지어 보지 않고 언어의 불안정성과 의미의 유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 보기에 이를 단순히 수사적 기능을 간과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다.
- ③ 반복 사용된 은유는 점차 그 비유적 흔적이 사라져 문자적 의미처럼 통용되며 그 문자적 의미가 강화된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 비유적 흔적이 마모되면 이 은유는 마치 문자적 의미를 얻은 듯 통용된다.'
- ⑤ 다양성을 강조할수록 은유 의존이 깊어진다고 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보편주의'를 자처할수록 은유에 더 의존한다는 문제를 지적한다.

2. 답 ②

정답

② 특정 철학의 '가치 체계'가 제거된 결과라는 설명은 보편적대상을 가장하도록 '탈색'된 것이지, 철학의 가치가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서구 철학의 은유 기피와 보편성 추구가 백색 신화를 낳았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백색 신화는 보편성의 질서 속으로 개인들을 편입시키는 작용을 하므로 적절하다.
- ④ 지역적인 사상을 보편적 진리로 둔갑시키는 과정이 백색 신화이므로 적절하다.
- ⑤ 은유가 가려져 인식하기 어렵게 만든 결과라는 설명도 백색 신화를 이해하는 데 타당하다.

3. 답 ②

정답

② 은유가 반복을 거쳐 문자적 개념으로 가장되는 과정을 '은유의 문자화(㉠)'라 했다. 상징은 1문단에서 은유나 비유와 유사한 지위로 서술되었다.

오답해설

- ① 죽은 은유(㉡)는 실제로 철학에서 보편 개념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한다.
- ③ 경계선(㉢)은 살아 있는 은유와 죽은 은유 사이의 흐릿한 경계를 가리키므로 적절하다.

- ④ 은유의 문자화(㉠)는 철학이 죽은 은유(㉡)를 보편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 ⑤ 죽은 은유(㉡)가 반복되어도 그 경계선(㉢) 서구 철학이 모호한 경계를 애써 지우려 하면서도, 필연적으로 은유를 되풀이해왔다는 설명을 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다.

4. 답 ④

정답

④ 두 학자 모두 은유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블룬베르크가 은유를 '준개념'으로 보아 사유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하였으며 테리다도 마찬가지로 은유가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하였기에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블룬베르크는 은유를 개념이 불충분한 영역을 임시로 지지해준다고 본다. 그러나 테리다도 은유가 개념 성립의 출발점으로 기능한다고 보았으며, 두 학자는 모두 은유가 철학이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았기도 하다.
- ② 테리다는 은유가 언어의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긍정적 대상으로 보았기에 우려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사고 지지대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은유는 아직 준개념적 역할을 수행하는 은유이지만, 테리다의 죽은 은유는 더 이상 은유가 은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의 은유를 뜻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⑤ 둘 다 은유가 사유를 보완한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지만, 정당성 평가에서는 입장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현대시

(가) 김수영, 「꽃잎 1」
(나) EBS 수능특강 89쪽 연계
이정록, 「희망의 거처」

5. 답 ⑤

정답

⑤ : (가)는 '고개'를 의인화하여 대상이 일어서는 줄 모르는 것과 가닿는 언덕을 모르는 것을 묘사하고, (나)는 '옥수수대'와 '버드나무'를 의인화하여 각각 뿌리를 내리는 모습과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로 스스로 기둥을 세우는 것을 묘사한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 (가)는 명시적 청자를 확인할 수 없다.
- ② : (나)는 색채어의 반복을 확인할 수 없다.
- ③ : (가)에서는 공간의 이동을 확인할 수 없다.
- ④ : (가)와 (나)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6. 답 ③

정답

③ : ㉠은 스스로 내린 뿌리를 통해 상처를 치유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흠집에서 뿌리를 내린 후 이러한 뿌리가 다시 흠집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됨을 표현하는 말이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① : ㉡는 땅바닥에서 서너 마디까지 뿌리를 내리

는 옥수수대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② : ㉢는 옥수수대가 땅에 뿌리가 닿지 못할지라도 길게 뿌리를 내리는 모습을 드러내는 말이다. 이는 땅에 닿지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자 하는 옥수수대의 의지를 드러내는 말이라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④ : ㉣는 버드나무가 뿌리가 상처의 지붕에서 상처의 주춧돌이 됨으로써 스스로 기둥을 세우는 것을 드러내는 말이다. 이러한 뿌리는 상처에서 시작되어 상처를 극복하고 버드나무의 기둥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을 지탱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⑤ : ㉤는 버드나무와 옥수수가 상처에서 자신의 버팀목을 꺼내어 살아가며 자라난 푸른 이파리들이 눈을 맞추는 것을 표현하는 말인데, 이는 두 식물이 상처를 이겨내고 그것에서 버팀목을 꺼내어 살아가는 강인한 생명력을 긍정하는 말이라 볼 수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7. 답 ④

정답

④ : 시에서 '바람의 고개'는 바위를 뚫고 떨어져 내릴 한 잎의 꽃잎과 같다고 비유하는데, 이는 시대적 고난을 극복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다. 따라서 '바람의 고개'가 임종의 생명 같다는 것은 시대적 고난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아니라, 시의 맥락상 시대적 고난을 극복할 것이라 전망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 '벼를 터는 마당'은 화자가 위치한 일상적인 공간이고, 이에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은 그 곳에 외부의 힘이 부재함을 가르킨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 '옥수수잎이 흔들리'는 장소는 벼를 터는 마당인데, 그 곳에서 바람이 불지 않음에도 옥수수잎은 흔들리고 있다. 또한 옥수수잎이 흔들리는 것은 화자가 일상적 공간에서 인식한 실재하는 움직임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③ : 바람의 고개가 '자기가 가닿는 언덕을 모'름에도 일어서는 것은 시대적 고난을 극복해야 하는 의식이 없이도 시민들의 내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 바위는 시에서 시대적 고난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위를 뚫고' 한 잎의 꽃잎이 떨어져 내리는 것은 내적 변화를 통해 시민들이 시대적 고난을 극복한 모습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8. 답 ②

정답

② : (가)에서 화자는 '바람의 고개'가 '혁명'같다고 하는데, 이 둘을 연결 지어서 바람의 고개가 변화를 몰고 올 존재라는 화자의 생각을 유추하는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① : (가)에서 화자는 바람의 고개가 거룩한 산에 가 닿기 전에는 즐거움을 모른다고 한다. 따라

서 거룩한 산에 가는 과정에 즐거움이 존재한다는 화자의 생각이 '거룩한 산'과 '즐거움'을 연결 지으면 알 수 있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에서 '땅에 닿지 못할'은 옥수숫대가 지닌 '맨발의 근성'과 연관되어 있으나, '성처의 지붕'은 옥수숫대가 아닌 버드나무가 가진 뿌리가 흠집에서 기인했음을 표현하는 말이다. 따라서 이 둘을 연결하여도 '맨발의 근성'에 대한 화자의 생각은 유추할 수 없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에서 '상처'와 '버팀목'은 대비되는 대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둘을 연결 지으면 '생'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아닌 화자의 버드나무와 옥수수의 '생'이 강인하다는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에서 화자는 '꺼졌다'와 '깨어나고'는 즐거움이 꽃이 되었을 때 그 꽃의 모습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즐거움'에 대한 화자의 시선을 유추할 수 있다는 선지의 진술은 타당하다. 그러나 (나)에서 화자는 옥수숫대가 뿌리를 '땅에 닿지 못할 헛발일지라도 길게' 틀어민다고 표현한다. 따라서 내려진 '뿌리'가 얕다는 생각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